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전교인 수양회가 '쉽, 기도, 사귄'을 주제로 이번 주 2일(목)부터 4일(토)까지 홍천 팔렬중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일(목)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수양회를 위한 준비위원회의가 오후 집회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8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29일(월) 저녁 6시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전력량 10% 줄이기 - 7, 8월 교회 전력 사용량을 작년보다 10% 줄이려 합니다. 실내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안 쓰는 공간의 전등은 꼭 꺼 주세요.

2012 청파전교인여름수양회
 일시 : 8월 2일(목) - 4일(토)
 장소 : 홍천 팔렬 중고등학교

식 당 봉 사 : 이영란 이현순 이소혜 이소애 이윤정 방극숙 이국노
 8/5 식 당 봉 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최희정 백묘현 이성범
 오늘설거지봉사 : 이준하 하진솔 김영아 노준우
 다음 주 설거지 : 박시내 김수진 최은미 이성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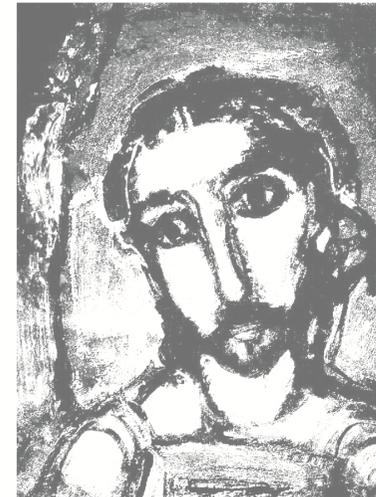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오랜 시간 준비해온 전교인 수양회를 곧 시작합니다. 참된 쉼을 통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를 통해 내면이 든든해지며, 사귄들 통해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청과 공동체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어리고 연약한 생명들이 너무 쉽게 유린당하는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원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그릇된 욕망으로 뜨거워진 마음들을 다 차분하게 식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상준 최경미 고숙이 김기석 김희우 윤정덕 구성실 권미숙 김순자
 김용진 박효선 김정민 이해령 김지윤 김연실 김필순 박석희 조항미
 박성호 박영희 박준희 박인혁 이기분 배부례 안세진 윤미경 윤수진
 임승동 백혜숙 이경남 이정운 이준림 조병규 조병욱 조정연 최종원
 최윤희 최재욱 이수정 한기택 홍성식 이유리 황경순 황영균 황영순
 황자순

감사헌금:

강금열 강순배 김대규 박경애 김용길 최영애 김인석 김정진 이선아
 박성호 홍주희 박종연 안정현 박홍재 윤정덕 구성실 최성애 허신열
 허강림 무명3

녹색꿈헌금: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혜선 민경배 문현미 임미선 최재욱 이수진
 추현영 무명

생일감사헌금:

형인순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박효선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손성현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허정운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서정순 조항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쉼	쉼
--	-------------------------------------------------------------------------------------------------------	-------------------------------------------------------------------------------------------------------	---	---

쌀

정일근

서울은 나에게 쌀을 발음해 보세요, 하고 까르르 웃는다
 또 살을 발음해 보세요, 하고 까르르 까르르 웃는다
 나에게에는 쌀이 살이고 살이 쌀인데 서울은 웃는다
 쌀이 열리는 쌀 나무가 있는 줄만 알고 자란 그 서울이
 농사짓는 일을 하늘의 일로 알고 살아온 우리의 농사가
 쌀 한 톨 제 살점 같이 귀중히 여겨 온 줄 알지 못하고
 제 몸의 살이 그 쌀로 만들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쌀과 살이 동음동의어이라는 비밀을 까마득히 모른 채
 서울은 웃는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며 사십시오. 바르고 참된 믿음들이 모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혼자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에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김기석 목사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홍재 권사	최문희 선생 허신열 집사

7월	영접위원	김인걸 허호범 윤성종 박성실 김윤정 김현주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단순하게 살기

15

옷 만드는 사람이 옷을 만들어 팔 때, 유일한 공(功, service)은 몸에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이 구두를 만들어 팔 때에도 유일한 공은 발에 구두를 신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다른 것을 줄 때에는 두 가지 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받는 사람이 물질적 은혜를 입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주는 사람이 영적 은혜를 입는 것이지요.

남에게 베푸는 행위가 그 주인공에게 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받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다면 그의 영혼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돈 받고 팔지 않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기술과 재물을 값없이 나눠주는 그런 사회를 상상해보세요.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물질적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 은혜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이미 축소판으로 존재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그것이지요. 한 마을 한 도시가 큰 가족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별것이겠습니까?

16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줄 때 그 양(量)은 물건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재어야 합니다. 가난한 여인이 다른 가난한 여인에게 보리죽 한 그릇을 나누어주었다면, 교회에서 주관한 자선 행사에 금화를 던져 넣은 부자보다 더 큰 칭송을 들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터인데도,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사뭇 다르더군요.

한 부자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바쳤을 때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칭송합니다.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해서 궁핍을 느낄 리 없건만 사람들은 그의 너그러움을 찬양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적은 예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요. 그 사람은 그 돈이 없으면 당장 배를 곯아야 할 지경이지만 아무도 그를 칭송하거나 그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을 칭송하느니 차라리 아무도 칭송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보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가 바치는 돈의 액수보다 속마음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칭송할 사람을 칭송하는 게 더 낫겠지요. 사람들이 자기 재물 내어놓는 데 너그럽듯이 우리는 그들을 칭송하는 데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17

콩 한 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밭 갈고 씨 뿌리고 익은 곡식 추수하는 농부의 수고를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농부에게는 쟁기, 낫, 괭이, 삽 따위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삽자루와 멩예를 만드는 목공도 필요하지요. 마구를 만드는 무두장이도 있어야 하고, 마소를 위한 외양간과 곡물 쌓아둘 공간을 짓는 목수도 필요합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제과업자도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농부의 모든 수고가 소용이 없습니다. 농부에게는 또, 목수가 튼실할 나무들을 가꾸는 숲의 관리인이 있어야 하고 빵 구울 때 쓸 장작을 장만하는 나무꾼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콩 한 알 만드는 데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지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네 형편인데,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서로 착취하고 속이려 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착취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단순하게 살기」 중에서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389년 콘스탄티노플의 교구장이었으며 명설교가였다. 크리소스토무스는 ‘황금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